

#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청신호

##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규제 풀려 빅데이터 활성화

광주시의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화 길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제 동의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핵심요소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프라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용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신용

정보 이동권한 확대로 제3자인 미디어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데이터수집 정책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 및 빅데이터 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러닝 등과 결합된 AI산업의 기술개발이 발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가 좁아 AI산업을 위한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AI) 선도국을 추격 위한 정부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황애란 기자

## 전남 산림자원 융복합 연구 '쟁걸음'

국비 30억 확보...버섯 활용 가축사료 개발 등 연구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교우위 산림자원 소재발굴·산업화를 통한 지역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R&D 과제에 공모, 30억여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R&D 연구과제는 총 4개다.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분야 3개 과제와 미래 산림 전문인력 양성분야 1개 과제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된다.

산림생명자원 소재발굴 연구분야 3개 과제는 난대수종을 활용한 고부가치 천연향장품 개발연구와 목질계 산림버섯을 활용한 천연가죽 대체소재 개발연구, 백합과 식물인 국내 재배 신사란 활용 천연 통풍 섬유소재 개발연구다.

미래 산림 전문인력 양성 과제는 난대 산림자원을 소재로 식·의약 6차산업화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다. 전남대학교 등과 산·학·연 공동연구로 추진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 자체 연구과제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자생수종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 모델 개발연구 등 24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R&D 연구사업은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에서 총 10개 과제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이며, 현재 지자체 산림 연구기관 중 가장 활발한 R&D 연구를 하고 있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장은 "임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임산업 융·복합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시,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17일까지 대형유통업체 대상

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17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곡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검사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상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고,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황애란 기자



트렌디어패럴 기부금품 전달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어패럴컴퍼니 트렌디어패럴 기부금품 전달식에 참석해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과 김민주 트렌디어패럴 대표(오른쪽)로부터 기부금품을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구청서 하세요"

지방세법 개정...이달부터 5개 구로 이관

광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광주시 관할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받는다.

3월 3일부터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홈택스(국세)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결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집중되는 종합·퇴직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에는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를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 전남 면적 축구장 228개 넓이 늘었다

공유수면 매립·산단 조성 등 효과...해남·순천·고흥 순

전남지역 면적이 지난해 축구장 228개 넓이만큼 늘어났다. 공유수면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내 지적통계 수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면적은 지난해보다 160만㎡ 늘어난 1만2,345km<sup>2</sup>로 최종 확정됐다.

이같은 면적은 축구장 228개 넓이로, 2019년 전남지역 평균 개발공사지가 (1만399원/㎡당)로 환산하면 169억원

규모의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여수시 울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40만㎡, 완도군 완도항 및 고흥군 발포항 공유수면 매립 신규 등록 등으로 20만㎡가 늘었다.

시·군별 면적은 해남, 순천, 고흥, 화순, 보성 순으로 크고 필지 수는 해남, 고흥, 나주, 순천, 신안이었다.

토지 이용현황별로는 임야가 6961km<sup>2</sup>(56.4%)로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농지

3,193km<sup>2</sup>(25.9%), 도로 446km<sup>2</sup>(3.6%), 대지 304km<sup>2</sup>(2.5%) 순이며, 기타 1,441km<sup>2</sup>(11.6%) 등이다.

전남의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넓다. 기업도시 개발, 도로 등 SOC 확충, 해외 및 수도권기업의 투자유치 등으로

대지·공장용지·잡종지·도로 등 지목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임야·농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말 국토교통부 검증과정을 거쳐 지적통계연보에 수록 될 예정이다.

토지정책 수립 등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man.go.kr)과 토지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 임야

바로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 투자 자문

금매물/경매 입찰·낙찰물건

법적으로 보장, 010-3605-5000

## 북방정책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도, 22일까지 접수...우즈벱 등 시장개척단 파견

전남도가 지역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즈벱키스탄·카자흐스탄·몽골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시장개척단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우즈벱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한다.

우즈벱키스탄 인구는 3,200만명으로, 중앙아시아 최대를 자랑한다. 최근 5년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한국상품 인지도가 높아 미래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원의존형 경제구조로, 대부분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장품, 의류기기, 의약품, 세제류, 자동차부품 등의 수요가 많다.

몽골은 국제 광물시세 회복에 힘입어 소비시장이 살아나는데다 한류영향을 받아 중소기업의 유망 틈새시장이다.

시장개척단 참가자격은 전남에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자사제품 영문 카탈로그 또는 동영상상 가진 업체다. 수출을 준비하는 내수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

시장개척단은 10개 기업 내외로 구성된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항공료 50%(최대 100만원),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다. 참가기업은 잔여 항공료와 숙박비만 부담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 부실 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 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영업직  
신입·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신입·경력직 모집

법무사 및  
금융계 은퇴자  
특별대우!

### 새한신용정보(주)

062.227.0337 | 010.3602.6324

광주지사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년

근조화환 3년

### 경조화환 6만원

시의 기타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택배성 302-0316-649511